

한국 디자인 DNA: K-디자인

2011

디자인진흥원사

- 한국 디자인 DNA 세미나 개최
- 디자인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 (지식경제부)
- 융합디자인 컨퍼런스 개최
- 필리핀 디자인나눔 세미나 개최
- 국제서비스디자인 세미나 개최

한국 디자인사

- 삼성-애플 디자인특허 소송
- LG 트롬스타일러 출시
- 우아한 형제들 설립
- 제2회 『타이포잔치』 개최

한국 사회사

- 폭우로 인한 우연산 산사태
- 무역수지 1조 달러 돌파
- 김정일 사망
- 트위터 한국어 서비스 시작

1990년대 말 드라마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은 K-팝을 거쳐 이제 한국 대중문화 전반을 물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확산된 상태다.

여기서 제품은 물론이고 문화 곳곳에 깃든 K-디자인, 즉 한국의 디자인이 기여한 바는 적지 않다. K-디자인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토대로 국내외에서 기획·생산된 우수 디자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리만의 미적·철학적 정체성이 ‘한국 디자인 DNA’가 담겨 있다. 즉, 세계인이 인지하고 있는 한국 디자인만의 특성이 한국 디자인 DNA이며, K-디자인은 한국 디자인 DNA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KIDP는 막연히 한국적 정체성을 규정하기보다 한국적 디자인 키워드를 활용해 현대 산업 사회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디자인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그 개념과 특성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방향, 인프라 조성과 함께 한국적 디자인 개발이 활성화되고 세계 시장에서 성공적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전문적 연구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디자인 DNA를 통해 K-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국 디자인의 특성 개념을 정리하고 건축, 가구, 도자유기, 의복, 인문 정신, 예술 정신, 산업디자인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여 ‘전통 사회와 디자인’ 그리고 ‘현대 사회와 디자인’ 두 가지 측면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연도인 2010년에는 한국 디자인 DNA 발굴 사업에 관한 기획 과제를 확정하고 디자인 풀을 구축하여 50개 주제의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고, 7개 분야에서 안동 하회마을(건축), 백자달항아리(도자유기), 당의(의복), 훈민정음(인문정신), 인왕제색도(예술정신), 삼성 LED TV(산업디자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141선을 선정했다.

2011년 2월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디자인 DNA 세미나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총 29명의 각 분야의 연구자가 대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한국 디자인 DNA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향후 그 활용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어서 2차 연도인 2011년에는 한국의 대표 디자인 91선에 대한 메타 데이터 추출을 진행해 심화 연구로 체계화했으며, 2012년에는 대표 디자인 141선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를 실시하고, 한국 디자인 DNA 홈페이지를 구축해 성과를 공개했다. 2013년에는 각계 각층의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터뷰를 거쳐 『왜? K-Design인가』라는 책을 발간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 형성과 K-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2018년 『디자인코리아』 주제를 ‘K-디자인 DNA’로 정하고 관련 포럼과 주제관 전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한국 디자인에는 공감과 배려, 유연성과 창의성, 통합과 융합, 정교한 구현력 등의 특징이 곳곳에 배어 있다. 특히 전통적인 측면에서 한국 디자인 DNA는 여백, 소박, 조화 등의 미적 DNA와 홍익인간, 민본사상, 애민사상, 실사구시 등 철학적 DNA가 융합되어 있다. 이제 한국의 디자인은 과거 근대 서구 문화에서 파생된 디자인 개념을 넘어 우리 안에 자생한 디자인 DNA와 융합, 더욱 창의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